

5·18 진상규명, 무등산 타잔 등 굵직한 이슈 전국에 알려

세상을 바꾼 광주일보 특종들

광주일보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편다'는 가치를 내세우며 창간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수많은 특종기사를 쏟아냈고 현대사의 굵직한 현안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철저한 기자 정신으로 항상 시대 상황에 반발적 자세를 나타내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품위를 잃지 않았다.

◇역사의 중심...한 구석도 소홀히 않는 신문=지난 1980년 5·18 민주항쟁 때는 10일 동안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2일 '무등산은 알고 있다'(옛 전남일보), '광주는 영원하다'(옛 전남매일신문) 등 제목의 기사로 파멸한 절규를 대변했다. 당시 군홧발에 짓이겨 광주의 잠극을 알리지 못해 진실보도의 의무를 저버린 자책감과 반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5·18에 맞춰 진행한 기획시리즈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체 추모곡을 지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파헤친 기사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광주일보는 도시 빈민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무등산 타잔'으로 불리는 박홍숙 사건도 비중있게 다뤘다.

박홍숙 사건은 지난 1977년 무등산 중턱인 덕산골에 울막을 짓고 살던 박홍숙이 철거에 나선 구청 공무원 4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박홍숙은 처음에는 철거에 순순하게 응했지만 철거반원들이 불을 지르면서 일이 커졌다.

철거반원들이 집에 두고온 30만 원을 찾기 위해 불에 뛰어든 자신의 어머니를 밀쳐 정신을 잃게 하고 폐결핵 환자들을 집에까지 불을 지르자 화끈함을 잊지 못한 것이다.

당시 전국제천을 앞둔 광주시가 체전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인 대통령이 도립공원에서 지정된 무등산을 찾은 것으로 예상하

대학 시간강사 사건 보도 사회적 약자 관심 환기

순천현대하이스코 충돌 현장 등 카메라에 생생히

호남선 KTX 개통 첫날 차체 파손 최초 보도

고 철거에 나선 것이 비극을 낳았다.

지난 2010년 생활고와 교수제 폐지 탈락에 따른 좌절감으로 세상을 등진 대학 시간강사 사건에 대한 집중 보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광주일보는 당시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점을 제안했다.

◇부정·부패 감시...성역 없다=전남도 입찰 비리 사건은 고질적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파헤치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광주일보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사다.

광주일보는 지난 2002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입찰프로그램을

조작,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보도해 입찰프로그램이 전면 교체되도록 했으며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관용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하는 등 공직 사회 비리를 파헤치는 위치독 역할에 충실했다. 이외 수해 복구 비리 등 고질적 지역 비리 척결에도 앞장섰다. 또 굵직한 주요 이슈마다 독자인 지역민들의 편에서 검증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영광)원전 방사는 유출 및 은폐 사실도 광주일보의 감시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일보는 이후 '한빛원전서 방사능 오염 물질 12시간 이상 외부유출 파문' 기사를 시작으로 파장을 연속 보도해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1990년대 한국도로공사와 허술한 고속도로 통행권 시스템을 악용, 통행권을 바꿔치는 사례가 잇따르는 현장을 잠복 취재로 확인, 보도해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장은 생명이다...시대변화에 한발짝 앞서=가장 먼저 현장에 다가서려는 광주일보 기자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

다. 지난 2005년 10월 순천현대하이스코에서는 경찰버스 3대가 불에 타고 시위노조원과 경찰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 10여년만에 발생한 유혈 충돌 현장이었지만 현장을 지킨 카메라는 광주일보가 유일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담양 펜션 화재 사건 등에서도 광주일보는 현장을 지키며 사실 보도에 충실했다. 최근에는 호남선 KTX 개통에 맞춰 다가올 미래상을 취재하는 한편, 개통 첫날부터 차체가 파손됐지만, 적절한 정비과정 없이 승객 안전을 무시하고서 내달린 사실을 최초로 확인, 보도하면서 안전성 점검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신문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진기자들의 노력을 잊을 수 없는 사진도 많다. 특종과 낙종은 바로 그 사이에 있다.

지난 1988년 1월 8일, 박철용 조선대 총장 일가 퇴진과 학원민주화운동 시위(1·8항쟁)를 벌이던 조선대학교 이광호(당시 4학년)씨가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본관에서 투신했다. 당시 광주일보 사진기자의 한 컷 사진은 사건 현장에서 집중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획물 '광주·전남 대해부도'도 광주·전남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경연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988년 1월 8일, 박철용 조선대 총장 일가 퇴진과 학원민주화운동 시위(1·8항쟁)를 벌이던 조선대학교 이광호(당시 4학년)씨가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본관에서 투신했다. 이씨는 나무에 떨어지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2005년 10월 발생한 순천현대하이스코 유혈 충돌 사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0여년 만에 발생한 유혈 충돌 사건이었지만, 현장을 지킨 카메라는 광주일보가 유일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 현진에버빌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번지 1층(53평)
정남향 / 초중고인접 / 즉시입주가

◆ 보1억5천만원 / 월100만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5평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14층 15평
사무용 적합/내부깨끗/즉시입주가

◆ 매매 3600만원

674 - 2006